

2010년은 유엔이 정한 생물다양성의 해이다. 유엔은 현재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와 기후변화 등으로 위협 받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손실 속도를 줄이고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2010년을 생물다양성의 해로 정해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종다양성을 넘어서서 종 내부 유전자의 다양성, 생물종들이 서식하는 서식지의 다양성, 서식지들이 구성하는 경관의 다양성을 포괄하는 매우 넓은 개념이다. 생물다양성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물종 하나만을 보전하는 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생명체가 살아가는 서식지 환경을 같이 보전해야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예를 들어 호랑이를 보전한다고 하는 것은 호랑이가 살아가는 서식지 환경 전반을 보호하여 그 속에서 호랑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랑이만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원에 호랑이를 가두고 보호하는 것은 진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인간이 발견한 생물종의 개체수와 서식지의 40%가 사라졌다. 1년에 2만6000종, 20분에 한 종씩 사라진 셈이다. 생물이 사라지는 것



### 불자 세상보기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 빼앗기는 동물들의 삶터

은 자연스러운 진화 현상이지만, 현재의 멸종 속도는 자연적인 현상에 비해 100-1000배나 빠르다. 이것은 사람에게 의해 진행된 서식지 파괴, 과잉개발, 환경오염 같은 문제들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그동안 경제성장의 속도에 비해해 전국토가 빠른 속도로 개발됐고 자연환경은 훼손됐다. 그 결과 풍부했던 산림은 여러 조각으로 파편화됐다. 동물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먹이자원과 물, 잠자리, 피난처 등과 같은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개발에 의해 파편화된 숲들은 이들에게 충분한 먹이와 피난처를 제공하지 못해 이곳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야생동물들은 멸종되거나 로드킬을 당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고속도로와 같

은 곳에서 로드킬을 당하는 야생동물들은 먹이를 구하거나 짝을 구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도로를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이다. 동물들에게는 생존과 연결된 매우 절박한 문제이지만 사람들은 동물들이 쉽게 이용하기도 어려운 생태육교 몇 개를 만들어 놓고, 큰 선심을 쓴 것처럼 홍보에 열중하기도 한다.

최근 도심에 멧돼지들이 출현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림이 수용할 수 있는 멧돼지의 개체는 1.1마리이지만 현재는 3배에 가까운 3.8마리가 서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점은 각종 개발사업에 의해 야생동물들의 서식처가 분단되거나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좁은 국토 안에서 사람

들이 살아가기 위한 주거지와 산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야생동물들이 살아가는 서식지를 침해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한 개체수 이하로 사냥을 통해 밀도를 조절하면 멧돼지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대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4대강 사업과 같은 하천정비사업, 신도시 조성사업과 같은 개발사업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야생동물들의 서식처는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냥을 통한 밀도조절이란 측면에서는 앞으로 개발사업에 비례해서 더 많은 야생동물의 밀도 조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야생동물의 서식종수와 밀도가 세계에서 최하위에 해당하는 국가이다. 산림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좁은 국토 안에서 다양한 건설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좁은 국토에서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건설사업을 어쩔 수 없이 진행할 수밖에 없지만,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자연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합리적인 계획, 이를 위한 다양한 대체서식지의 확보 등과 같은 고민과 행동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이 더 훼손돼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전에 사냥과 같은 방법이 아닌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사설

### 승가교육 개혁안 환영한다

연초부터 추진해왔던 조계종의 승가교육 개혁이 추진 단계에 이르렀다. 지금까지는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이었다. 승가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1월 22일 담화문을 발표해 승가교육 개혁 의지를 거듭 밝히고 청사진을 펼쳐보였다.

담화문을 보니, 승가교육 개혁 방향은 네 갈래로 뻗어있다. 첫째는 교과과정의 개편이다. 종래의 한문교과 강독에서 한글화하고 현대화한다는 것이다. 내용도 초기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응용불교, 계율과 윤리 등으로 개편된다. 둘째는 전문교육과정의 개설이다. 기존의 학림과 율원을 선학승가대학원, 율원승가대학원, 조기불교승가대학원, 한문불전승가대학원으로 전환해 심화과정으로 운영한다. 셋째는

다양한 연수과정을 개설해 전법교화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상시 익힐 수 있도록 했다. 넷째는 교역자 양성 및 기존 교역자를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 등 지원하고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종대로 발전되어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획이어도 대중들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계획을 진행하는 중에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관련자들이 흔쾌히 마음을 열고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 국민 안심시키고 대화에 나서라

지난 23일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사건은 충격적이었다. 우리 국토와 국민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은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한다. 국제사회도 분노를 표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초기 대응 부실 등을 거론하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확진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 이명박 대통령 발언이나 아니냐는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곳곳에서 부실이 불거져나오고 있다. 우리의 포는 고장 나 있었고, 적 포탄 발사지점을 찾는 레이더 작동은 더디지만 했다. 이 정부에 안보를 맡겨도 되겠느냐는 불안감이 터져나오는 이유다.

책임론과 대북 대응책을 둘러싸고 자칫 국론분열도 우려된다. 선부르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이후 대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가 국민들을 자극할 수 있다. 또는 정부 비판을 막으려는 엉뚱한 기류가 형성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이런 때 불교계의 역할이 중요하다. 조계종과 불교종단협의회는 24일 성명을 발표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북한의 사과를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조계종과 종단협의회는 성명에서 남북당국에게 대화의 장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한다. 평화는 전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북한이 대화태이블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대북 정책의 전환이 요청된다.

'FBI 효과'라는 것이 있다. 즉, 성격은 원래 규격화할 수 없지만(Free-size), 한번 이름 붙여지면(Branded), 마음에 새겨진다(Imprinted)는 것.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인정을 받는다는 심리학계의 가설이다.

A, B, O 혈액형에 따른 성격 유형이나 심리테스트가 성행하는 곳은 한국·일본 정도라고 한다. 우리보다 먼저 혈액형별 성격 유형이 붐을 맞았던 일본에서는 1980년대 왜 사람들이 혈액형 분류법을 믿는지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까지 활발했다.

그에 따르면 혈액형 인간학을 믿는 사람들은 무리에 가입하고 복종하기를 더 원하는 사람들, 따라서 혈액형은 한 사회에 속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쉽게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주장이다.

물론 1901년 오스트리아 빈 병리학 연구소에서 연구 조교로 일하던 세균학자 칼 란트슈타이너가 혈액에 A, B, C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듬해 그의 동료 두 명이 나머지 AB형도 찾아낼 때만 해도 혈액형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을 것이다.

어쨌든 나는 'A'형 혈액형을 가지고 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트릴러 'A'의 소심하고 섬세한 성격이라고 소개한다. 병원 병당에서 대화나 상담을 하다 보면 느끼게 되는 일 중의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갖는 즐거움이 없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일상에



### 사부대중 칼럼

지홍

서울아산병원 불교법당 지도법사·정향사 주지

## 소심한 'A'형의 자기만족법

서 해야만 하는 일들 때문에 스스로를 위한 시간이나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화내거나 진땀지게 된다고 한다.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재원(財源)을 놓고서 외부와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에서 과연 이것이 나의 길이라는 데 추호의 의심도 없는가?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의무와 약속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답은 깨어 있는 삶일 것이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이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인가? 내게 옳은 일은 과연 무엇인가?"라며 점검을 해야 한다. 그래야 바른 의도로서 내가 내린

결정들이 올바르게 정렬될 것이다. "아니오"를 뜻하면서 "예"라고 대답해야 하는 상황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결국 자신감에 상처 임하고 자존감을 떨어트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사랑받고 타인에게 받아들여지게 느껴지게끔 살아 왔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개인의 힘과 진정성을 상실하게 되는 시작이다. 변화를 위하여 우리에게는 무엇이 진실인지를 찾아냄으로써 우리가 자신 스스로에게 갖는 믿음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내게 할 필요가 없는 행동의 패턴이나 생각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가끔씩 다음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본다. "나는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만약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나에게 죄책감이 들지는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 나도 해야 하지 않나,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가, 단지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가, "아니오"라고 대답하기가 곤란한 것은 아니었다.

위의 질문 목록에서 "네"라는 대답이 나올 때는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본다. 나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다음으로 들어보는 내 목소리는 다음과 같다. "나는 ...을 좋아하지만, ...을 할 충분한 시간이 없어" 또는 "나는 ...을 무척 좋아하지만, 너무 바빠."

스스로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인가를 믿는 것은 중요하다. 내게 무엇이 올 바름가는 중요하다. 그만큼 나의 행복은 우선순위를 갖는다. 내가 얼마만큼 깨어 있는지, 선택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매 순간 내리는 결정들의 정점은 우리의 삶이 된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 삶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의식과 지식을 바탕으로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는가? 타인의 눈에 비친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위해서 '나의 선택을 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선택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것이다.

###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인사총괄팀 실시간 뉴스 톨타뉴스 불교포털 부다피아 쇼핑몰 연불상담팀	www.hyunbul.com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www.hyunbulshop.com
---	--	---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사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	--	--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전국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365일 매일 한장씩 매일운세!**  
**한눈에 훑어볼 수 있는 대정비법!**

**화제의 신간**

새롭게 다시 쓴  
한국 최초의  
신개념 택일지  
운세 비법 출간!!  
매일매일 운세 보는법 공개...

4×6배판/칼라제본/436쪽/정가 20,000원  
문고판/칼라제본/436쪽/정가 10,000원

입금계좌 (예금주: 임원주)  
농협 023-02-500940  
신한 010-6413-4443

**(02) 3667-4446**  
**010-3813-4443**

**百超律歷學堂**

##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뒤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글쓴이 : 해천법사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수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기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명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